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치경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시간만큼 정직하고, 때로는 야속할 정도로 어그없는 것을 찾아보기를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일꾼을 뽑는 일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선거 시험’ 잘 치러야 하는 이유

창조적인 능력이 우선

우선 2010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도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30주년입니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1980년 일어난 끔찍한 상처를 딛고 깨끗하게 광주를 보듬고, 살림살이를 키워왔습니다.

일선 시·군의 살림살이를 맡을 단체장들도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투표 잘해야 행복해져

이번에는 광주와 전남의 교육감도 주민의 손으로 뽑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은 살림은 뒤지더라도 아이들만큼은 공부 잘한다는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좋은 지방의원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매우 소중합니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지역의 미래 설계가 훌륭한지,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은 자치의 감시자입니다.

〈사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시설

‘세종시 블랙홀’ 우려 현실화되나

세종시가 기업과 투자의 블랙홀이 돼 다른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3.3㎡당 227만원인 세종시 매각대상용지를 최저 36만원선에 대기업과 대학 등에 공급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담은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5일 세종시 민간합동위 회의에서 확정된 입주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면 토지와 재정, 규제 등을 망라한 모든 부문에서 유례없는 혜택이 제공된다.

웰 경우 세종시는 모든 것을 빼앗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다. 특히 세종시보다 수도권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의 피해는 치명적이다. 어떤 기업과 투자자가 우리 지역에 눈을 돌리겠는가.

‘잡은 기상이변’ 재난대책 보완 시급하다

경인년 새해 벽두부터 폭설과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에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라는 ‘눈 폭탄’이 쏟아진 데 이어 호남지역에도 적지않은 눈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유럽도 폭설이 강타, 스웨덴에서 눈사태로 10여 명이 숨졌다.

위기 대처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교육을 통해 신속 대처할 것을 약속해왔으나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 기상이변을 천재지변으로 돌린 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기고

장화선



지난해 연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코펜하겐 총회)가 뜨거운 논쟁거리만 남긴 채 큰 소득없이 막을 내렸다.

진국의 동의와 본 당사국총회 사무국의 수용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코펜하겐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그 결과가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닌 정치적인 합의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그것은 이 문제의 급박함을 생각할 때 어렵기 그지없다.

아쉬움만 남긴 2009 코펜하겐 총회

노덴하겐(Nopenhagen)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은 물론 우리나라 시민단체 소속 예술가가 코펜하겐 인어상 부근에 만든 작품에 ‘말장난 그만, 온실가스 배출도 이제 그만’이라는 작품과 ‘한국 녹색성장 녹색기반’이라는 포퍼민스도 있었다.

고 있는 기후변화행동네트워크가 국제 환경회의 때마다 ‘그날의 화석상’을 발표하는데, 이번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기간에 거론된 국가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미국, 호주, EU였다.

사실 이번 총회에서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반해 경제력을 키운 선진국들이 결단을 내릴 지 여부였다. 개도국들이 수긍가능한 선진국들의 중기(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노력 그리고 현실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 자금지원과 기술이전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코펜하겐 총회에서 주요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 빛을 지고 있다는 마음뿐이다.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우리는 지금의 안이한 태도로 언젠가 닥쳐올 미래의 재앙을 방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푸른광주21협의회 사무처장〉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신호연동체계 유지했으면

심야시간에 광주 시내를 운행해 보면 주간에 비해 유독 신호위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호체계가 가장 큰 이유이지 싶다.

호에서 여지없이 정지신호를 받게 된다. 심야시간 연동신호를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심야시간에 도로를 주행해보면 그 답답함과 신호위반 사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승민석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상을 주었다.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시를 잘 짓는다고, 그림과 붓글씨에 뛰어나다고 상을 주었다.

으로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들의 몫이다.

학교교육에 선진화의 인프라를 깔자

이 자라나도록 자극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잘할 때 잘했다고 인정해 줄 때 긍정적인 자아의식이 싹트고, 자기 잠재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꽃피워갈 것이다.

표율 상승 등 각종 변수가 많을 전망이다. 따라서 선부른 예상은 금물이다.

대학입시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전적인 학생을 발굴해야 한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새해인 학교교육에 선진화의 인프라를 새롭게 깔아야 한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전문학적 대학 등록금... 정부가 대책 내놔야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학비와 그렇게 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안락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이것은 곧 학업 경쟁에서 낙오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다시 취업시장에서의 도태, 탈락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서울의 아주 잘나가는 대학에 다니는 것이 아니면 과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문제를 놓고 대학생들과 학교당국, 그리고 정부와의 연례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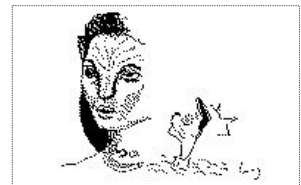
▲조경현·광주시 서구 금호동

無等鼓

영화 ‘아바타’(감독·제임스 카메론) 영화 내용 중 하늘에 떠있는 섬은 ‘천공의 성 리퓨타’를, 나비족이 신성한 나무와 자연에 경의를 갖는 것은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를 닮았다.

이런 흥행 코드를 직접하게 배치해 기막힌 이야기를 만들어낸 카메론의 저력히 우리 나라에도 잘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대해 깊은 애정이 있다.

아바타



또 다른 코드로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했던 ‘늑대와 함께 춤을’과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라스 트 사무라이’가 있다.

카메론감독은 일본문화 애호가다. 특히 우리 나라에도 잘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대해 깊은 애정이 있다.

한 국에서 얼마나 기록적인 성공을 거둬서 귀추가 주목된다.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